

The Mythical Man-Month CH 2 요약문

20160169 최수민

* Man-Month(M/M)은 월당 투입되는 인력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작업의 양을 의미한다. 프로젝트의 크기 혹은 작업 시간을 추정할 때 사용된다.

CH2 - The Mythical Man-Month

1. 핵심

- a. SW 프로젝트들은 다른 이유보다도 시간이 부족한 문제를 많이 겪는다. 저자는 이 배경을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 i. 프로젝트의 크기 혹은 소요 시간을 추정하는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SW manager의 직감에 기대는 방법으로 보통 진행된다.
 - ii. 투입된 노력(혹은 시간)을 진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 iii. 추정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SW 매니저들이 '쉐프의 완고함'이 부족한 경우가 잦다.
 - iv. 스케줄 진행 상황이 잘 모니터링되지 않는다.
 - v.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력을 추가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2. 새롭게 배운 것

- a. 인력과 시간은 상호교환가능하지 않다. 즉 1:1로 치환하여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례해 output을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i.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에 기여하려면 training이 필요하다.
 - ii.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선 intercommunication이 필요하다.
 - iii. component debugging과 system test는 sequential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 b. 저자가 SW task의 일정을 정할 때 사용하는 경험적 룰이 있다. 일정 산정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 i. 1/3 planning
 - ii. 1/6 coding
 - iii. 1/4 component test & early system test
 - iv. 1/4 system test, all components in hand
 - v. 이 때 coding만이 그나마 추정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는 1/6 밖에 안 된다.
planning을 기대보다 훨씬 크게 잡았지만 이것조차도 디테일한 스펙을 짜거나 신기술에 대해 조사하기엔 부족할 수 있고, 전체의 1/2는 디버깅하는 데 소요하는 것이 좋다.

- vi. 전 회사에서는 planning 부분, 특히 신기술의 조사를 진행할 때는 개발 일정을 산출하기 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살펴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충하려고 했다. 또한 일정을 산출할 때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구현 및 디버깅에 걸릴 것 같은 시간을 산출한 뒤 항상 1.5배를 하여 일정에 버퍼를 두었다.

3. 중요하다고 느낀 것

- a. 일정 산출의 경우 정량적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 i. SW 매니저의 직감에만 맡기면 그 누구도 그 일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productivity figures, bug-incidence figures, estimating rules 등을 발전시키고 공표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 b. 사전에 정한 스케줄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력을 추가하여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경우 일정을 재산정하거나 일정 내 수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나누어 진행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 i. Brooks's Law: Adding manpower to a late software project makes it later.
 - ii. 이는 휴학하며 일했던 스타트업에서도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다. 당시 빠르게 개발해야 했는데 프로젝트 사이즈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면서 이미 있는 인력으로는 원하는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 사람을 더 뽑았었다. 어느 정도 경력자를 뽑아 짧은 교육 및 인수인계만으로도 금방 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초반에는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보니 오히려 기존의 프로젝트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투입되어 혼동이 컸고 그로 인해 일정이 지체되는 부분도 생겼다.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인력은 적어도 3개월은 온전한 1인분을 해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으며, 이 책을 통해 training을 완료한 인력이라도 intercommunication으로 인해 애초에 1인분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